동학농민혁명기념관
“찾아가는 기념관” 01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함성!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오로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수십만의 동학농민군은 빗발치는 신식무기를 피하지 못하고 스러져갔지만, 그들의 애국애족 정신은 훗날 일제시기의 항일운동을 비롯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정신문화유산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념관’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나아가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를 위하여 우리는 1894년 그 당시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함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학무명농민군, 박홍규 作, 2008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배경


▲탐관오리의 횡포

●삼정의 문란

조선후기 세금제도는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삼정체제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양반을 비롯한 지배층은 부담하지 않고 직접생산자인 농민층에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자의적으로 명목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층은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매관매직의 성행

흥선대원군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민씨정권은 숱한 폐단을 낳으며 조선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씨 정권은 수천 냥에서 수만 냥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지방관은 다시 뇌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납한 뇌물의 부담은 세금 징수를 빙자한 수탈의 형태로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민란

●민란의 발생

19세기 조선의 농민들은 그들의 삶이 위협받자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862년 임술민란이 대표적인 민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란은 고종대에도 계속되는데 1871년 영해민란은 수령을 살해하고 조선왕조에 반기를 드는 병란적 성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민란 또는 병란은 이후 대규모 농민봉기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주체세력의 등장

동학농민혁명이 19세기 농민봉기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동학’이라는 사상과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한 것과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으로 대표되는 전라도 동학교단의 변혁 지향적 인물들이 주체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를 농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였던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청과 영국의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는 청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서구 제국주의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주의 상품시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원료공급지를 모색하고자 조선과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봉준
全琫準 1855 ~ 1895

전봉준장군은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와 금구집회에서 전라도 사회개혁세력의 중심으로 등장하였으며, 1893년 11월 사발통문거사계획을 세워 동학농민혁명의 기획자로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주도하였으며 3월에는 무장에서 기포하였고 백산에서 농민군 총대장이 되었습니다. 황토현전투와 황룡전투에서 승리한 전봉준장군은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청일군대가 조선에 주둔하자, 폐정개혁안을 조건으로 전주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7월에는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라도전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민협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일본군의 경복궁점령 이후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전봉준장군은 재봉기를 결정하고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남북접이 연합한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하여 대결전을 벌이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3대지도자



손화중
孫華仲 1861 ~ 1895

손화중장군은 동학교단의 대접주로서 전라도 서부의 거의 대부분의 동학 교단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손화중장군이 동의함에 따라 전봉준장군은 무장에서 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손화중장군은 백산에서 김개남과 함께 총관령이 되어 황토현전투와 황룡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894년 9월 재봉기 과정에서는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올 것을 대비하여 나주와 광주 지역을 방어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재판을 받고 전봉준장군과 함께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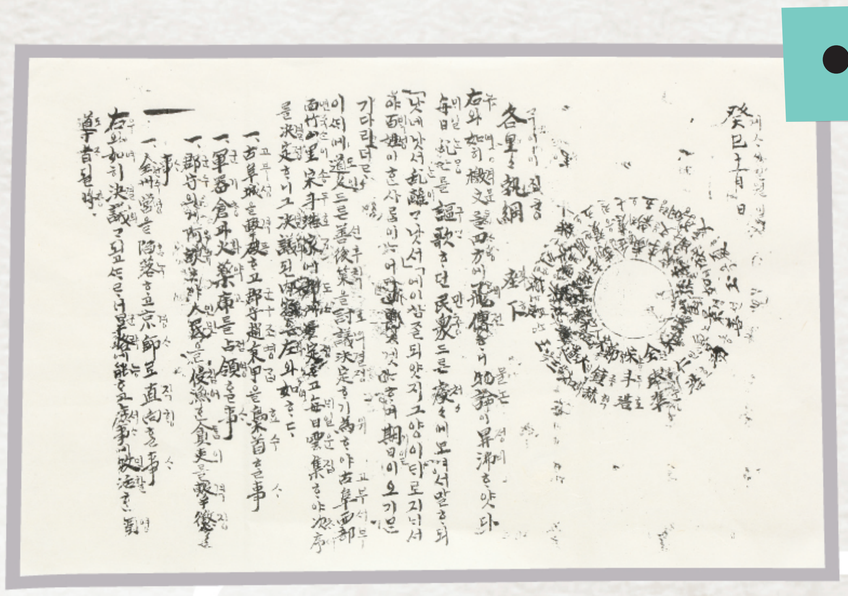


김개남
金開南 1853 ~ 1894

1853년 전라도 태인에서 태어난 김개남장군은 1890년대 동학에 입교하여 세력을 키워 대접주가 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백산에서 총관령이 되어 황토현전투와 황룡전투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전주성점령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894년 9월 재봉기 과정에서는 공주로 진격하는 전봉준과 합류하지 않고 청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남하하여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체포되어 전주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사발통문 거사계획



▲사발통문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0명은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가에서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수탈하는 관리를 엄벌할 것,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직향할 것 등을 결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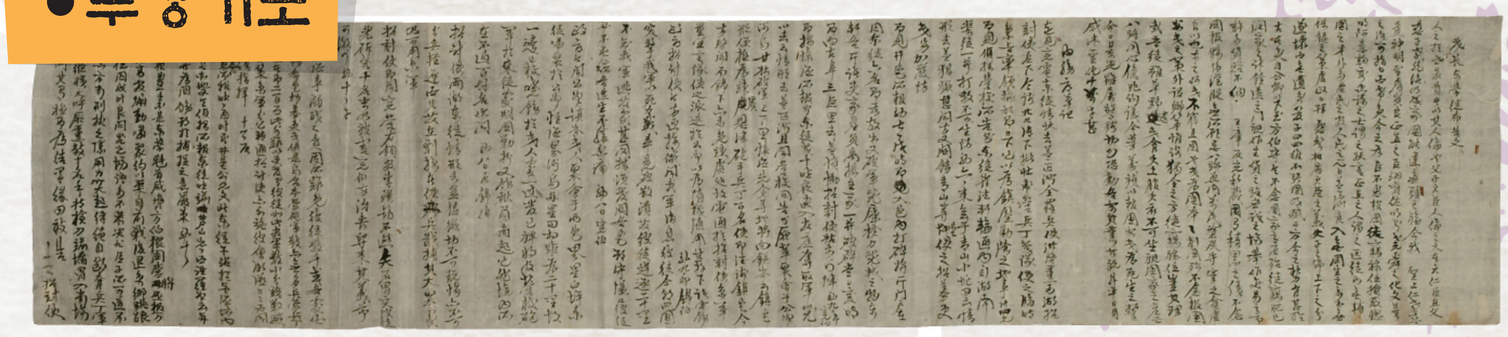
●고부농민봉기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이 이끄는 고부 농민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서 벗어나고자 말목장터에서 봉기하여 고부관아를 점령하였으며, 무기고를 헐어 무장하고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보를 무너뜨렸습니다.



▲고부관아 터(현 고부초등학교)

●무장기포



▲무장포고문

1894년 3월 20일 무장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거병擧兵의 목적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백산봉기 기록화, 오승윤 作, 1976

●백산봉기

1894년 3월 26일 각지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백산에 모여 전봉준을 총대장, 김개남 · 손화중을 총관령으로 하는 지휘체계와 조직을 구성하고 격문과 4대 명의, 12개조 기율을 발표함으로서 농민군대로서 조직과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황토현 전적지 내 기념탑

●황토현 전투

1894년 4월 7일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4,000여명은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이자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황토현 전적지 내 전봉준 동상

●황룡전투

황룡전투는 1894년 4월 23일 전라남도 장성의 황룡에서 동학농민군과 서울의 정부군이 벌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정부군과의 싸움에서 장태(닭과 병아리를 넣어 기르던 닭장)를 무기로 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황룡전적지 기념탑


▲황룡전적지 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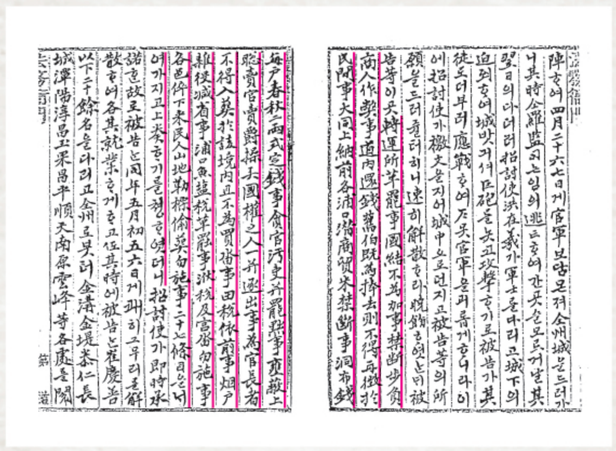
●전주성 점령

황토현전투와 황룡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1894년 4월 27일 엄청난 위세를 과시하며 전주성을 공략하였고, 곧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전주는 호남지역의 정치 · 경제 · 군사의 중심지이고 조선왕조의 발원지로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조선 정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주 풍남문

전주화약과 집강소


▲전봉준 판결문 중 폐정개혁안

●전주화약

1894년 5월 8일 농민군 총대장 전봉준과 초토사 홍계훈은 농민군의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안을 임금에게 올린다는 조건으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의 타협을 맺었는데 이를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 폐정개혁안 :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사회 개혁안


▲원평 집강소



▲집강소 기록화, 이의주 作, 1984

●집강소 설치

1894년 7월 6일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은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농민군이 전라도 내에 집강소를 설치 · 운영 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농민군의 집강소는 농민자치로 농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주도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오늘날 최초 지방자치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일본에 의한 조선 경복궁 점령을 나타낸 일본측의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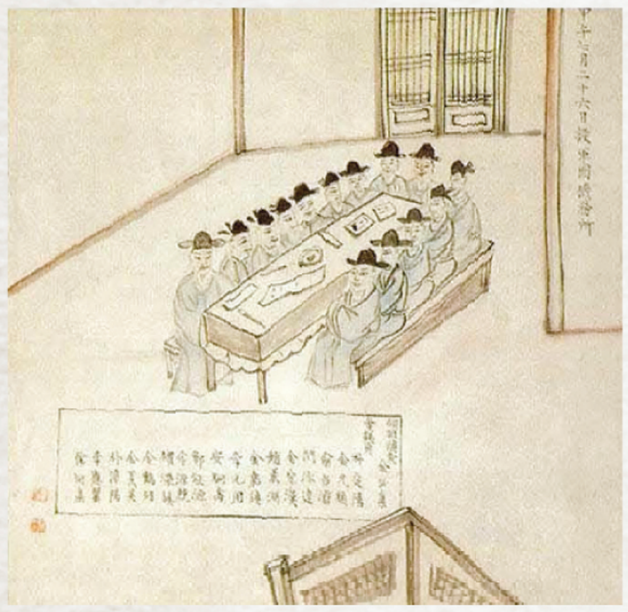
● 경복궁 점령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여 내정이 안정되었으므로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지만 일본군은 1894년 6월 21일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정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94년 인천항에 상륙한 일본군

● 청일전쟁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일본은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차지할 목적으로 청 · 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89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크고 작은 전투가 우리나라의 풍도, 아산, 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선은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가 되었으며,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군국기무처 회의 장면



▲김홍집

● 갑오개혁

조선정부는 1894년 7월부터 1895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거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1차 김홍집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행정, 사법, 교육, 정치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어서 김홍집과 박영효가 연립내각의 형태로 신분제도를 개혁하여 반상을 폐지하는 등 2차 계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삼례봉기 역사 광장

●삼례봉기

1894년 9월 초순 전봉준은 일본군이 정권을 침탈하고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전라도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재봉기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무기와 식량을 확보한 후 삼례를 출발하여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과 함께 봉기하였습니다.


▲우금치 전투 기록화, 이의주 作, 1984

●우금치전투

1894년 11월 9일 공주 우금치에서 수만의 농민군은 10분의 1도 안되는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화승총(동학농민군 사용)



▼스나이더 소총(일본군 사용)



●사용무기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및 조선 관군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큰 이유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신식 무기에 있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영국산 스나이더 소총을 갖추고 있었지만 농민군에게는 농기구와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화승총이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내 일본 영사관에서 법무아문으로 인도되기 직전의 전봉준

●지도자들의 체포

1894년 12월 2일 전봉준이 순창 피노리에서 붙잡히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손화중, 김개남 등 주요 지도자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1895년 3월 30일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 주요 지도자들은 교수형을 당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1895년 초만까지 계속된 항쟁





▲전남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탑과 석대들전투지

●장흥 석대들전투

1894년 12월 15일 이방언이 이끄는 장흥지역 농민군 수만명이 장흥 석대들에서 일본군과 민보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충북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북실전투지

●보은 북실전투

1894년 12월 18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농민군이 충청도 보은 북실에서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둔산 항전지 내부



◀대둔산 항전지 내부에서 발견된 탄두

●대둔산전투

1895년 1월 24일 대둔산에서 약 3개월간 진을쳤던 있던 농민군은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소년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최후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후 농민군토벌대를 철수한 일본은 조선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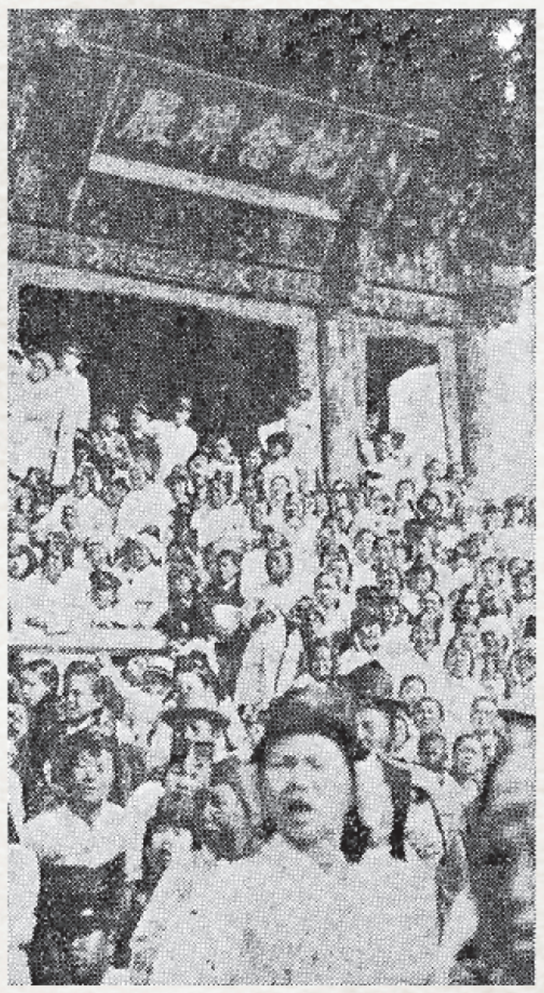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찾아가는 기념관" 10

끝나지 않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평등•자유•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수립을 목표로 한 동학농민혁명은 결국 보수 양반계층과 이들이 끌어들인 '일본' 이라는 외세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던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맥은 이후 항일 의병항쟁 및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으로 이어져 현대 민주시민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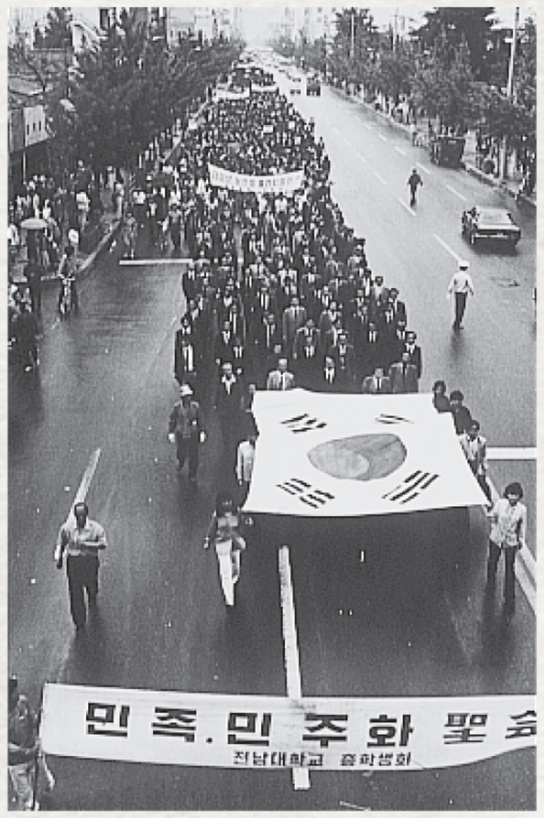
▲1907년 정미의병 당시 의병들의 모습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 당시의 모습



▲1980년 5•18 민주화 운동